

研究論文

능몽초의 『이각박안경기』 소재 일지매 이야기 연구

한중 일지매 형상 비교를 곁하여

서신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 국문학 전공
sh2448@hanmail.net

- I. 머리말
- II. 능몽초의 『이각박안경기』 39권 소재 일지매 이야기의 양상
- III. 한중 일지매 형상의 변별성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일지매 이야기의 원류로 알려져 있는 능몽초의 『이각박안경기』 내 일지매 이야기¹⁾를 살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일지매 형상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지매에 관해서는 소문만 무성한 채 전하는 자료를 거의 찾지 못하다 가 필자가 2004년 관련 자료를 논문으로 발표²⁾한 이래 몇 편의 논문이 나왔을 뿐이다. 필자가 명말청초의 소설 『환희원가(歡喜冤家)』에 일지매 이야기가 있음을 소개하고, 이것이 전해져 조선의 문헌에 나타나게 된 일지매 이야기들을 발굴·소개했다. 그 후에 최용철 교수께서 『환희원가』 이전에 능몽초의 『이각박안경기』에 일지매 이야기가 있다며 수정해주셨다.³⁾ 하지만 연원과 그것의 전파에 집중한 탓에 작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비교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후 2008-2009년 TV 드라마 <일지매>, <돌아온 일지매>의 방영에 따라 이들 드라마의 기법에 대한 연구논문이 몇 편⁴⁾ 있었으며, 2011년 이래 필자가 다시 일지매에 관한 몇몇 자료를 더 소개하고, 콘텐츠 통사적인 면에서 한국에서 나온 일지매 관련 작품에 대한 일련의 논문을 발표했다.⁵⁾ 하지만 일지매에 관한 가장 오래된 자료인 『이각박안경기』에 관해서나, 한중 일지매

1) 현재까지 발견한 기록에서 일지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각박안경기』이다. 이 책과 『환희원가』라는 책이 조선에 전래되어 읽히고 있는 저변에 관해서는 서신혜, 「일지매 이야기의 연원과 전승 양상」, 『어문연구』 123호(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239-260쪽; 최용철, 「의적 일지매 고사의 연원과 전파」, 『중국어문논총』 30집(중국어문연구회, 2005), 279-308쪽을 참조 바람. 기존의 연구에 의하여, 한국의 일지매 이야기가 이들 중국 기록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2) 서신혜, 앞의 논문, 239-260쪽.

3) 최용철, 앞의 논문, 279-308쪽.

4) 배선애, 「매체전환에 따른 TV 드라마의 대중성 확보 방식 연구-식객과 돌아온 일지매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41집(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342-377쪽; 윤석진, 「HDTV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의 서사 기법 고찰-이야기 전달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7집(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547-578쪽; 한양민, 「책녀의 기능 분석을 통해 살펴본 돌아온 일지매의 영웅담론」, 『문예시학』 21집(문예시학회, 2009), 71-94쪽.

5) 서신혜, 「일제시대 일지매 관련 새 자료의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76집(한국언어학회, 2011. 3), 85-107쪽; 서신혜, 「一枝梅 콘텐츠 생산 경향사와 그 방향성」, 『한문학보』 24집(우리한문학회, 2011. 6), 97-122쪽; 서신혜, 「현대 일지매 관련 출판물의 계통과 그 功過」, 『한국언어문화』(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12), 249-274쪽.

형상에 관한 비교연구는 아직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한 형편이다.

문화의 전파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졌지만 일지매의 경우는 더욱 흥미 있는 예이다. 일지매의 경우, 옛날에 문헌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영상물이 오히려 한국에서 중국으로 역 전파되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게 만든 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지매는 이후에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자료의 발굴 소개와 연원 전파 양상에 집중했던 기존 연구에 이어 이제 일지매 형상과 그 이야기 전개 특징을 세세하게 비교할 것이다. 우선 『이각박안경기』 소재 일지매 이야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일지매 이야기를 비교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II. 능몽초의 『이각박안경기』 39권 소재 일지매 이야기의 양상

능몽초(1580-1644)는 명(明) 말기의 문인으로, 호는 초성(初成)이고, 절강성(浙江省) 오흥현(吳興縣) 사람이다. 송정(崇禎) 초년 서주(徐州)의 통판(通判)이 되었다가 이자성(李自成)의 난 때 죽었다. 특히 백화체 문학에 뛰어났으며, 뛰어난 희곡을 여럿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쓴 『박안경기』는 당대 인기를 끈 백화체 단편소설로, 1628년에 『초각박안경기(初刻拍案驚奇)』가 간행되었고, 1632년에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가 간행되었다.

일지매 이야기는 총 40권으로 구성된 『이각박안경기』 중 39권에 「神偷寄興一枝梅 俠盜慣行三昧戲」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으며 총 1만 3,233자이다. 이 책은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⁶⁾

1. 「神偷寄興一枝梅 俠盜慣行三昧戲」의 구조

『이각박안경기』 39권 소재 일지매 이야기는 백화체로 쓰였고 상당히 긴 분량의 작품이다. 일지매 이야기의 연원이라 하여 소개되기는 하였으

6) 여기에 관해서는 최용철, 앞의 논문, 290-292쪽 참조.

나 전체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으므로, 전체 이야기 구조를 설명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각박안경기』 39권의 일지매 이야기는 여러 삽화를 특별한 표시 없이 나열해놓았다. 그래서 언뜻 보면 무작위로 삽화를 나열한 듯 보이지만, 사실 이 삽화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 배치되어 있다. 그의 훌륭한 점, 장난스러운 점, 정치성 도둑질, 향후 행적 등으로 구분하여 여러 삽화를 모으고 나눈 것이다. 삽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 서론: 인재 등용이 제대로 안 되는 세상

- (1) 전국(戰國)시대 맹상군이 진나라에서 억류되었다가 빠져나오는 이야기
- (2) 송나라 임안 ‘아래야(我來也)’ 도적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이야기

■ 본론: 지금 세상 인재 나룻(懶龍), 즉 일지매 이야기

- (1) 나룻 인정기술(人定記述): 활동시기, 지방, 이름, 신이한 출생, 특이한 생활 특성 등
- (2) 도둑이 된 나룻의 소지품: 오래된 무덤을 보살펴주고 얻은 빛나는 청동 거울
- (3) 훌륭한 점: 인격 혹은 행실의 면
 - (3-1) 도둑질 도중 잘못 들어간 집의 부부가 빛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주갑(周甲)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다 줌
 - (3-2) 가난해진 어릴 적 친구를 위해 부잣집 물건을 훔쳐 전부 주면서 바르게 살도록 함
- (4) 임기응변 솜씨
 - (4-1) 달아나다가 어느 집 옷장에 숨었다가 갇혔을 때 쥐 소리를 내어 문이 열릴 때 옷 보따리 속에 묻혀 빠져나오며 불을 꺼버린 후 귀신처럼 사라짐
 - (4-2) 침상 밑에 숨겨놓은 은을 훔치려다 부인에게 다리를 잡혔으나, 남편의 다리를 세계 꼬집어서 영겁결에 부인이 남편 다리를

7) 아래의 분류와 분류번호, 제목은 원문에 없다. 필자가 논의의 편의상 붙인 것이다.

잡은 것으로 오인하여 놓게 만들

(4-3) 옷감집을 털다 들키자 장독 속에 숨었다가 결국 도적질하고 도망침(임기응변 두 가지)

- 장이 떨어지는 자국을 이용하여 달아난 것처럼 해놓고 다시 집 안에 숨음
- 밖에서 사람들과 마주치자 험웃 보따리를 보물인 양 던져 주의를 흐트린 후 도망침

(5) 관리와의 결탁

(5-1) 순포장지휘의 시험을 받아들여 관청 처마에 걸어놓은 앵무새를 훔침. 이후 교류

(6) 장난으로서의 도둑질

(6-1) 침실에 숨긴 돈을 가져가보려는 제안을 받아들여 훔쳐갔다 다음날 돌려줌. 쥐로 가장하여 부인을 부엌으로 유인하고, 우물에 돌을 빠뜨려 남편이 부인을 구하러 나오게 함

(6-2) 술집 주인 영감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인의 술병을 훔쳐감. 지붕을 뜯어내고 돼지 오줌통을 대나무 끝에 매달아 호리병 입구에 넣은 후 바람을 넣어서 병을 들어 올림

(6-3) 친구들의 제안에 따라 비단 이불을 몰래 훔친 후 되찾아주고 받은 돈으로 술잔치를 함. 도둑이 전당포에서 그 물건을 돈과 바꿔 가려다 못 한 것처럼 꾸며 물건을 찾아줌

(7) 징치(懲治)로서의 도둑질

(7-1) 호구의 쌀가게 주인이 나룻 무리에게 쌀도 팔지 않고 쫓아내기 에, 밤에 그 앞에서 밧놀이로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는 대롱으로 문과 쌀통을 연결시켜 쌀이 배로 쏟아지게 함

(7-2) 자신을 따돌리고 놀러간 백운방(白雲房) 도사들을 혼내달리는 사왕삼(紗王三)의 부탁을 받은 나룻이 도사들이 정체를 감추기 위해 쓴 모자를 훔쳐서 배주인과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정체를 폭로함

(7-3) 수탈을 심하게 하는 무석 지현(知縣)의 창고에서 금을 훔치고, 나중에 다시 가 작은택 머리카락을 잘라 지현의 도장 상자에 넣어두니 지현이 무서워 체포를 포기했다는 이야기

(7-4) 나룻이 어느 탐욕스러운 지현의 부탁을 받아 어사의 인신(印信)

을 훔쳐다 주면서 그에게 경고가 됐으니 돌려주어도 효과 있다 하였으나 지현이 말을 듣지 않다가 오히려 순안어사의 피로 인신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8) 누명 그리고 도둑질을 그만둔 사연

(8-1) 소주 관아 창고지기 관리가 금을 훔치고 나룻에게 덮어씌우려 하나, 사또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아 나룻은 남경으로 피함. 정체를 알아차린 장소사에게 사건 전모를 알려주어 해결케 한 후 대가로 돈과 칼을 함께 주니, 칼을 본 장소사가 다시 그를 건드리지 않았음

(8-2) 나룻은 또 모함 당할까 봐 두려워 이후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다가 생을 마침

■ 결론: 솜씨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나룻은 신이한 솜씨로 간첩 등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여 사람들의 농담거리로만 전락한 것이 애석함

이와 같이 이 글 안에는 여러 삽화가 일정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먼저 서론적으로 다른 시대 도둑의 이야기를 꺼내었다. 그런 서론에 이어 ‘옛 인재 이야기는 접어두고 지금 인재의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룻, 즉 일지매의 이야기인 것이다.

작가는 나룻이 명나라 가정년간 소주지방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다면 서, 한마디로 그는 ‘속투(俗偷)가 아닌 신투(神偷)’라고 규정하며 설명한다. 정확한 내력은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자신이 나룻이라고 하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것, 어미가 신물(神物)과의 교합 끝에 낳은 인물이라는 것, 신이한 지혜와 특이한 생활 특성을 지녔다는 것, 도둑질한 후 늘 매화 가지 하나를 그렸다는 것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삽화를 잇는 방식으로 서술이 이어진다.

일지매 논의를 하는 우리에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오직 이 부분에서만 나룻이 일지매라는 설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가는 곳마다 물건을 손에 넣고는 매화 가지 하나를 벽에 그려놓았다. 검은

벽에는 분으로 하얗게 그리고 흰 벽에는 숯으로 검게 그려두기를 빼지 않으리 사람들이 또 그를 일지매라 부르기도 했다.⁸⁾

하지만 인용한 것과 같이, 특별한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룻이 갔다 온 곳에는 ‘한 가지의 매화’를 그리기 때문에 일지매라 부르기도 했다는 말만 있을 뿐이다. 이후에는 그를 ‘일지매’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 두세 군데 정도에서 ‘나룻이 어느 곳에 일지매를 그리고 나왔다’라고 언급할 뿐, 작가는 시종일관 그를 ‘나룻’이라는 이름으로만 부른다.

나룻에 대한 인정기술이 끝난 대목부터 삽화가 이어진다. 이 삽화들이 모두 작가가 창작한 것은 아니다. 당시 작품 창작의 일반적인 방식은 전래되는 여러 이야기를 작가가 나름의 방식으로 모으고 바꾸는 방식이었다. 능몽초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하되, 한 인물의 다양한 면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삽화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2. 인재 등용 문제에 맞춘 작가

그렇다면 작가는 어떤 생각을 드러내고자 하였는가? 서술 방식을 보면 나머지는 거의 삽화를 보여주지만 하는 방식이지만, 글의 시작과 끝은 작가의 목소리가 전면에서 드러나는 서술 방식을 썼다. 이 글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시에서부터이다.

역대 대단한 도적 중 지혜로운 이 있으나	劇賊從來有賊智
그중에서도 오묘함이 무궁한 이로다	其間妙巧亦無窮
만약 거두어 나라 위해 일하게 한다면	若能收作公家用
틀림없이 나라에 공을 세우지 않겠는가	何必疆場不立功

도둑이지만 오묘한 솜씨가 있는 이이니, 이런 이를 거두어 쓰면 나라에

8) 凌濛初, 『二刻拍案驚奇』卷之三十九, 「神偷寄興一枝梅 俠盜慣行三昧戲」(『續修四庫全書』1787권, 468-485쪽). 所到之處, 但得了手, 就畫一枝梅花在壁上, 在黑處將粉寫白字, 在粉牆將煤寫黑字, 再不空過, 所以人又叫他做一枝梅. 이후 인용하는 원문은 모두 이 책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따로 책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에 따라 두 예를 나란히 말했다. 전국(戰國)시대 맹상군이 진나라에 억류되었다가 빠져나오는 이야기와 송나라 때 ‘아래야(我來也)’라고 적어놓고 가던 도둑이 감옥에 있다 풀려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재주 있는 이들을 잘 등용한 예이고, 후자는 능력이 있어도 쓰이지 못하여 엇나간 예이다. 이 둘을 나란히 대조하여 인재 등용이 제대로 안 되는 세상을 지적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후 벌어지는 이야기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읽게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의도적인 대조 후에 작가는 또다시 이렇게 정리한다. ‘이렇게 지혜롭고 숨썬 있는 사람은 다른 쓸 데가 있지 않겠는가(你道如此賊人智巧, 可不是有用得著他的去處么).’ 즉, 인재 등용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안타까움을 표시한 후, 같은 맥락에서 다음 인물을 소개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능몽초는 나룻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의 ‘숨썬 좋음’을 이해하고 ‘그 같은 인물이 재주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함께 안타까워하지는 목소리를 드러낸 것이다.

능몽초는 나룻의 인정기술 외 15가지 삽화를 다 소개하고 난 후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도 같은 맥락에서 그의 주장을 강조했다.

우선 나룻을 도둑질하는 소인(小人)이 아니라 ‘협객(俠客)’의 유(類)라 규정하고, 그런 협객들은 보통의 사대부와 다르다고 한다. 표리부동하지 않고, 재물에 대해서도 의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규정하에 다음과 같은 글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하물며 저런 신이한 숨썬까지 가지고 있으니 만약 적의 진영을 빼앗거나 첩보원 역할을 하게 한다면 어찌 시시한 공만 세우고 말 것이겠는가. 애석하게도 태평한 세상, 글만 높이는 시대라서 단지 정당하지 않은 잔꾀만 사용되어 남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⁹⁾

최소한 작가는 인재 등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쓰이지 못한 인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시하는 것을 주제로 이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것이

9) 似這等人, 也算做穿窬小人中大俠了. 反比那面是背非臨財苟得見利忘義一班峨冠博帶的不同. 況兼這番神技, 若用去偷營劫寨, 爲間作諜, 那里不干些事業? 可惜太平之世, 守文之時, 只好小用伎倆, 供人話柄而已.

드러난다. 그런 사회 배경적 특성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 나룻을 소개하는 초반에, 나룻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도둑인 노가가(蘆茄茄), 자모웅(刺毛鷹), 백담박(白搭搏) 등을 언급하여 지금 시대가 ‘도둑 만드는 세상’, ‘무뢰지소년(無賴之少年)이 많은 세상’이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다.

뛰어난 인재의 등용이 잘 안 되는 문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 인물인 나룻을 ‘도를 지닌’ 인물이라고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다음과 같은 부분이 바로 그런 작가의 언급이 표면화된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이 나룻이 비록 도둑질을 하기는 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훌륭한 점도 있었다. 그는 남의 여자를 강간하려 하지 않았고, 선량하고 어려운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남과 한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았다. 또한 의를 내세우며 재물을 가버어 여겼고, 겸하여 훔쳐온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인색한 지주나 의롭지 못한 부자를 괴롭히며 즉흥적으로 장난을 쳐서 우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그가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에게 쫓려서 그에게 귀의하려고 하는 사람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의로운 명성이 대단하였다. 나룻은 웃으며, “나는 부모도 안 계시고 봉양할 처자식도 없으니 이 세상에 남아도는 재물을 빌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른바 남는 것을 덜어다 부족한 데를 채운다는 것은 천도(天道)의 당연함일 뿐 내가 의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할 뿐이었다.¹⁰⁾

그가 도둑인 점의 의미를 최대한 약화시키면서 그의 행위의 특징들을 ‘도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나룻 스스로의 입으로 ‘천도(天道)’를 행하고 있다고까지 하면서, 그가 세상에서 크게 활약할 만큼 인재라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문제는 그런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는 세상 위정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삽화들은 기존에 전해지는 이야기들 중 일부를 수용하여 만든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작가가 일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배치하고 변형하기는 하였으며,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10) 卻是懶龍雖是偷儿行徑，卻有几件好處。不肯淫人家婦女，不入良善与患難之家，說了人說話，再不失信。亦且仗義疏財，偷來東西隨手散与貧窮負極之人。最要憐憫那慳吝財主無義富人，逢場作戲，做出笑話。因此到所在，人多倚草附木，成行逐隊來皈依他，義聲赫然。懶龍笑道，“吾無父母妻子可養，借這些世間余財聊救貧人。正所謂損有余補不足，天道當然，非關吾的好義也。”

배치하다 보니 자료가 가진 성격에 따라 작가의 생각과 다른 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의 내용 정리 (5)에서 보면 순포장지휘가 그의 솜씨를 익히 들었다며 앵무새를 훔쳐가 보라고 한다. 순포장지휘는 앵무새를 새장에 넣어 관청 처마에 걸고 두 사람의 보초를 세워 그날 밤 지키게 한 후 자신이 직접 열쇠까지 챙겨서 퇴청했다. 하지만 나룻은 두 보초의 졸음이 최고에 이르렀을 때 지휘의 도포를 훔쳐 입은 채 어두운 등잔불을 이용하여 순포장지휘인 양 꾸민 후 '날아 밝아오는데도 나룻이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제 퇴청하라' 명한다. 졸린 포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뻐하며 퇴청했고 나룻은 유유히 새장을 들고 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후 삽화에서 일지매의 뛰어난 솜씨에 감격하고, 그 솜씨를 소개하는 데 열을 올리던 어조를 갑자기 바꾸어, 여기에서 작가는 비판적인 어조를 명확히 드러낸다.

지휘(指揮)가 웃으며 나와서 그에게 어떻게 훔쳐갔는가 물었다. 나룻은 어젯밤에 옷과 망건을 집어다가 지휘인 양 가장하여 앵무새를 가져간 일을 쪽 설명하였다. 지휘는 놀라고 기뻐하며 그를 매우 아끼게 되었고, 나룻 역시 때때로 그를 받들었다. 지휘가 마음을 열어 서로 의탁하니 나룻은 일 없이 편안하게 되었다. 온 세상 도둑 잡는 관리들이 오히려 도둑을 기르게 된 것이 이제껏 이와 같았다!¹¹⁾

‘관리와 도둑의 야합’의 연원을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 삽화를 나룻의 솜씨 소개 삽화가 아니라 관리와 도둑의 부정적·비판적 결탁의 증거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다음과 같은 시를 덧붙였다.

고양이와 쥐가 어찌 한데서 자리	貓鼠何當一處眠
맛있는 게 있어 침 흘리는 것일 뿐	總因有味要垂涎
도둑 잡는 이도 모두 도둑들이니	由來捕盜皆爲盜
도둑 떼가 어찌 성행하지 않으리	賊黨安能不熾然

지휘와 나룻의 관계를 고양이와 쥐의 관계로 비유하여, 이익을 위해 잠시 합하는 원수지간으로 규정했다. 그런 야합 때문에 도둑이 성행하고

11) 指揮含笑出來，問他何由偷得出去，懶龍把昨夜著衣戴巾假裝主人取進鸚哥之事，說了一遍。指揮驚喜，大加親幸。懶龍也時常有些小孝順，指揮一發心腹相托，懶龍一發安然無事了。普天下巡捕官偏會養賊，從來如此。

있다는 매우 비판적인 어조의 시를 인용한 것이다.

작가가 시대를 한탄하고 있는데, 그 시대란 인재 등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정자가 있는 시대이다. 그런 비판을 주된 주제의식으로 하다 보니, 여기에서 그 위정자의 대유로 쓰인 ‘지휘’를 비판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전후 맥락에서 줄곧 솜씨를 높이 사고, 단순 도적이 아니라 ‘도를 지닌 협객(俠客)’이라고까지 높이던 나룻까지 한꺼번에 비판하게 된 것이다. 이야기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하다가 결과적으로 어색함을 드러내기도 한 것이다.

3. 가릴 수 없는 유희성

앞에서 살핀 대로 작가는 인재 등용의 잘못, 관리가 인재 등용을 못 해서 생긴 도적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혼란한 사회상을 드러내는 데에 글의 목적을 두었다. 하지만 작가의 그런 의도와 달리 사실 작품의 재료를 이루는 각 삽화들은 매우 유쾌하고, 때로 장난스럽기까지 하다.

우선 제목부터가 그렇다. 제목이 ‘神偷寄興一枝梅 俠盜慣行三昧戲’라고 되어 있으니, 번역하면 ‘솜씨 좋은 도둑이 매화 한 가지에 흥을 얻고, 협객 같은 도둑은 장난 삼매경에 빠져 있네’ 정도가 된다. 도둑이라는 주인공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興’, ‘戲’라는 글자를 사용했다. ‘재미’, ‘흥미’ 면에 관심을 쏟고 있음을 드러낸 것인데, 그런 서술 관심에 따라 이런 삽화들이 서술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작품 곳곳에 드러난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도 다음과 같다.

서론적 언급이 끝나고 나룻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대목에서 ‘비록 일개 도둑에 불과하나 의로운 기운이 넘치고 동시에 장난기도 가득하여 허다한 웃을 거리와 들을 거리를 전해주었다(雖是個賊, 煞是有義氣, 兼帶著戲耍, 說來有許多好笑好聽處)’라며 그를 소개했다. 의기와 장난기를 나란히 말했지만 이로 인하여 ‘웃을 거리, 들을 거리가 많이 전해졌다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장난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정황이 드러난다.

도둑질을 위해 집을 잘못 찾아갔다가 숨는 모습(3-1),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들켜 쫓기는 모습(3-2)도 신투, 협도(俠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해학적인 장면이다. (4)의 임기응변 솜씨 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삽화는 이런 웃음이나 재미를 한껏 더 강조한다. 달아나다 옷장에 갇히는 것(4-1)이나 들켜서 장을 담아놓은 항아리에 숨었다가 장 국물이 떨어질까 봐 알몸으로 빠져나오는 것(4-3)은 재미있는 장면 그 자체이다.

나룡이 도둑질에 성공한 후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조차 한 편의 영화 장면처럼 제시해줌으로써 흥미를 배가시키기도 했다.

나룡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빠져나오기가 곤란할까 봐 급히 그 보따리만 가지고 노파의 급소 한 곳을 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밖으로 빠져나갔다. 방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일어나려다 바닥에 있던 노파를 밟게 되니 ‘도둑이야!’ 하며 소리만 지르며 손발만 버둥거릴 뿐이었다. 노파가 하늘에 닿도록 소리를 지르니 바깥의 사람들도 방 안이 소란스러운 것을 듣고는 다 달려와 불을 켜서 비춰보러 자기 집 사람들만이 서로 때리고 있을 뿐인지라 그만하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나룡은 벌써 떠난 지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¹²⁾

부부 두 사람은 내가 말했는데 당신이 틀렸네, 또 당신이 말했는데 내가 틀렸네 하면서 서로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다.¹³⁾

위의 것은 (4-1) 삽화로, 나룡이 옷장에 갇혀 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노파의 등잔을 꺼버리면서 그를 쓰러트리니 이후 그 집안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허둥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 인용한 것은 (4-2) 삽화로, 은을 훔치다 아내에게 다리를 잡혔을 때,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다리를 세게 꼬집음으로써 그 비명 소리에 아내가 엉겁결에 나룡의 다리를 잡은 손을 놓게 한 후의 장면이다. 부부가 서로 잘했네 잘못했네 다투는 사이에 유유히 달아나는 나룡의 모습은 독자 누구에게나 웃음을 머금게 하며, 나룡의 장난기를 잘 느끼게 하기도 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6)에 나오는 세 가지 삽화는 아예 ‘나룡은 정말 남을 놀린 일이 많았다(懶龍果然與人作戲的事體多)’며 내놓고 장난스런 삽화 셋을 시작했다. (6-3) 삽화까지 모두 말하고 나서는 ‘이런 장난스런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如此作戲之事, 不一而足)’고까지 했다.

(6)의 각각의 삽화에는, 결국 나룡과의 대결에서 그의 도둑질 솜씨를

12) 懶龍恐怕人起難脫, 急取了那個包, 隨將老嫗耍處一撥, 扑的跌倒在地, 望外便走. 房中有人走起, 地上踏著老嫗, 只說是賊, 拳腳亂下, 老嫗喊叫連天, 房外人听得房里嚷亂, 盡奔將來, 點起火一照, 見是自家人廝打, 方喊得住, 懶龍不知已去過几時了.

13) 夫妻兩個我道你錯, 你道我差, 互相埋怨不了.

이기지 못함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면서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다음날 아침 나룻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한턱 내라고 하였다. (돈을 잃은) 도박꾼이 크게 웃으며 돈 몇백을 소매에 넣고 가서 나룻과 함께 술집에 가서 술을 사서 그를 대접하였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어젯밤의 광경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술집 주인 영감이 그들이 크게 웃는 까닭을 묻길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주인 영감은…… “오늘 밤에 만약 자네가 이 술병 가지고 간다면 내일은 내가 한턱 쏘세” 하였다.¹⁴⁾

도박판에서 오랜만에 돈을 딴 것이 기분 좋아 나룻에게 흠쳐가 보라고 했던 사람이 보기 좋게 당하여 웃으며 나룻에게 술을 내고, 이 말에 자신도 술을 걸고 시험해보는 술집 주인 영감의 모습이 나온다. 모두들 나룻의 도둑질을 유희거리로 즐기며 유쾌하게 대했다.

(5)도 (6)과 비슷하게 숨씨를 부리는 내용이며, (7)의 정치적 도둑질에 나오는 삽화 중 두 번째 삽화 역시 남의 모자를 흠쳐 싸움을 붙이는 것이 매우 장난스럽게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보면 서론, 결론, 나룻의 인정기술 외에 총 15가지 삽화 중 2/3 이상이 이런 흥미성·유희성에 근거한 나룻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독자 역시 그렇게 즐기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글의 맨 마지막에 나룻의 후일담을 말하면서는 ‘지금까지도 소주의 사람들은 그가 교묘하게 남을 속인 우스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到今蘇州人還說他狡獪耍笑事體不盡)’면서, 그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도 했다.

요컨대 작가 능몽초는 인재 등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재들을 오히려 도둑으로 모는 세상을 한탄하며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자신의 문제의식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실상 작품 전체의 분위기는 이런 문제의식보다는 유쾌한 유희성을 질게 드러내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의식은 잊힌 채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유희적인, 장난기 어린 일지매의 모습이

14) 到得天明，懶龍將錢來還了，來索東道。博徒大笑，就勒下几百放在袖里，與懶龍前到酒店中，買酒請他。兩個飲酒中間，細說昨日光景，拍掌大笑。酒家翁聽見，來問其故，與他說了。……“今夜若能取得此壺去，我明日也輸一個東道。”

더 짙게 각인되고 이것이 이후 다른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Ⅲ. 한중 일지매 형상의 변별성

일지매 이야기는 중국에서 조선에 전해지자마자 그 연원이 잊힌 채 남녀노소에 걸쳐 인기를 끌었고, 그것이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일지매가 우리나라 사람이며, 임궫정이나 홍길동처럼 조선의 어느 시대 사람이려니 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일지매가 중국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연원만이 알려졌을 뿐 실제 한중 두 일지매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 문화는 전파되게 마련이므로, 전파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배경하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살핀 『이각박안경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에 나온 여러 일지매 관련 작품을 곁들여 한중 일지매의 형상을 비교해보자.

1. 재주꾼 일지매와 징벌자 일지매

『이각박안경기』에서 나룻, 즉 일지매가 턴 대상은 다음과 같이 총 11개이다.

- ① 대상(大商)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베 짜는 사람 주갑(周甲)의 집
- ② 황금이 무수하게 있는 대가(大家)
- ③ 어느 집(금 한 상자를 가지고 나온 집)
- ④ 도망가다 숨은 어느 집(옷장에 숨었다가 탈출)
- ⑤ 베 짜는 집(옷감 가게)
- ⑥ 요청에 의한 행동: 관청의 앵무새, 돈을 탄 노름꾼의 침상, 술집 주인의 술병
- ⑦ 물건을 자랑하는 복건성 공자의 비단 이불(장난스런 일)
- ⑧ 특정 무리를 배척하는 호구의 쌀가게
- ⑨ 본분을 숨기고 퇴폐적으로 놀려고 하는 도사들

⑩ 수탈자인 무석의 지현(知縣)

⑪ 오강의 지현을 수사하고 있던 어사(지현의 부탁을 받아 한 도둑질이
있음)

그런데 이들 대상은 특별한 악행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 대부분이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 중에 악행이 드러난 인물은 ⑩ 무석의 지현과 ⑪ 오강 근처의 지현뿐이다. 무석의 지현은 백성을 수탈하여 많은 재산을 모은 인물이고, 오강 근처의 지현은 탐욕스럽고 잔혹하여 어사가 그의 삭탈관직을 건의할 정도의 인물이라고 했다. ①-⑤에서는 대상 자체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아 그들이 악했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⑥과 ⑦은 당사자가 흠쳐가 보라고 했으니 상대의 악행 때문에 일지매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님이 명확하고, ⑧이나 ⑨는 일지매의 지인들에게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한 대리 징치였을 뿐 그들이 실제 남들에 대해 악행을 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일지매의 도둑질 대상에 대한 특징은, 일지매에 대한 관심이 그가 누구의 집을 털어 혼내주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솜씨 있게 도둑질을 해내느냐에 있고, 그가 어떤 방식을 이용하였는가에 대한 감탄에 있다. 그에게 도둑질을 해보라고 하며 시험하는 사람들의 삽화가 그렇게 많이 포함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 사람들은 누가 일지매에게 털리는가에 관심이 없고, 일지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내 집도 한번 털어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럿 실렸던 것이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그의 솜씨에 감탄하며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와 설명은 앞에서 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중국에서 일지매가 나오는 또 다른 책은 『환희원가』¹⁵⁾이다. 이 책은 전해 내려오는 일지매 이야기의 내용을 이어받아 번안하여 구성했다고 한다.¹⁶⁾ 이 책에서 보더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일지매의 도둑질

15) 『歡喜冤家』續十二回, 「一枝梅空設鴛鴦計」(『古本小說集成』326-327권), 409-434쪽.

16) 일지매 이야기는 『환희원가』의 23회에 적혀 있는데, 23회의 회말평(回末評)에 작가는 “이 회에 적힌 소설은 특별히 번안하여 만든 것이다(这回小说, 特意翻案做的)”라고 써놓았다. 물론 『이각박안경기』를 번안했다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이 책을 비롯한 여러 일지매 이야기에서 끌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환희원가』 소재 일지매 이야기에는 두 가지 삽화가 있는데, 그중 앞의 삽화는 『이각박안경기』에 나오는 2-3개의 삽화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이야기 구성과 표현 면에서 그런 영향관계가 확실하다.

대상은 어느 부사(副使)의 관아와 송강(松江) 노포(路布)의 집이다. 그 부사의 악행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송강 노포의 집에는 그저 계모가 딸을 구박한다는 극히 개인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을 뿐 이 집 주인이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이라서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일지매는 그저 도둑일 수는 있으되 의적일 수는 없다.

반면 한국(조선 포함)의 일지매 이야기에서 일지매가 도둑질을 하는 대상은 악인임이 분명한 이들뿐이다.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보다 복잡하여 여러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것이든 악행의 내용이 분명히 등장한다. 이들의 악행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지매는 자연히 선(善)의 쪽에 선 의인(義人)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제시대까지 나온 일지매 관련 자료는 ①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1762년) 삽화 중 1컷 <벽화지미(壁畫枝梅)>, ② 조수삼(1762-1849) 『추재집(秋齋集)』 「紀異」 중 <일지매> ③ 홍길주(1786-1841) 『수여연필(睡餘演筆)』 상권, ④ 성해응(1760-1839)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 9권 <기도(記盜)>에 소개되는 묵매도(墨梅盜), ⑤ 《민일신보》 大正 5년(1916년) 5월 21일자 장지연(1864-1921) <일사유사(逸士遺事)> 중 일지매, ⑥ 신구서림 발행 편찬자 미상 『십삼도재담집(十三道才談集)』(1928년) 중 첫 번째 이야기, ⑦ 대성서림 발행 이규용(李圭瑢) 『포도대장 장지항과 의도 일지매실기(捕盜大將 張志恒과 義盜 一枝梅實記)』(1929년), ⑧ 전세원(全世源) 《월간 야담》(1945년 3월) 소재 <괴도 일지매(怪盜 一枝梅)> 등 총 여덟 가지이다. 이 중 ①②③은 특별한 스토리가 없으므로 논외로 하고, 나머지 이야기만 살펴볼 때 일지매가 징치하는 대상은 귀주가(貴主家)(④), 탐관오리라는 큰 도둑은 놓고 생계형 좀도둑만 잡아가는 군관(⑤), 자기 무리에서 벗어나 양민이 되는 것을 막는 도둑 떼(⑥), 탐관오리 지방관들 및 백성을 해치는 화적 떼(⑧)¹⁷⁾이다. 사례가 얼마 되지 않아 뚜렷하지 않지만, 대체로 일지매는 대상에 대한 징치의 개념으로 도둑질을 한다.

광복 이후에 나온 일지매 관련 각종 서적과 영화 등의 경우는 이 점이 더욱 뚜렷하여 전쟁 직후나 구한말의 탐관오리, 남들은 굶어죽는데 혼자만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을 뿐 아니라, 부를 무기로 사람까지 마음대

17) ⑦의 경우 특별히 도둑질하는 내용은 없이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삽화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징치 대상을 정할 수 없다.

로 사려고 하는 악덕 부자들, 국가 기밀정보를 팔려고 하는 간신배, 식민지 직전 혹은 식민지 시기 조선을 괴롭히는 외국 지배자들을 도둑질 대상으로 삼는다.¹⁸⁾ 즉, 한국의 일지매는 도둑질 대상을 악인으로 한정하며, 그들에 대한 징치의 개념으로 활동한다. 의협 혹은 재주의 유쾌한 시험으로서의 일지매가 주로 형상화된 『이각박안경기』의 일지매와는 그 형상이 다른 것이다.

2. 협객 일지매와 의적 일지매

도둑질 대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일지매를 어떤 인물로 보느냐에 대한 차이이기도 하다.

중국의 일지매는 도둑이라기보다 ‘숨쉴 있는 협객’으로 형상화된다. 제목에서부터 주인공 나룻, 즉 일지매를 ‘신투’ 혹은 ‘협도’라고 한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협객은 어떤 인물을 말하는가? 사마천이 ‘유협이란 그 행위가 비록 정의에는 맞지 않더라도 그 말은 반드시 신의가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과감함이 있어서 이미 허락하면 반드시 성실히 행하여 자기 몸이라도 아끼지 않는다. 남의 어려움에 달려가 생사존망의 위기에 있으면서도 자기 능력을 뽐내지 않고, 자기 덕을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는 사람이니, 이 또한 칭찬할 바가 많은 자인저’¹⁹⁾라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옥이 ‘유협의 귀한 점은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베푸는 것을 중히 여길 수 있으며, 의기를 숭상하여 곤궁한 이를 도우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니, 그래야 유협이라 할 수 있으리라’²⁰⁾라고 한 것이 있다. 이들 유협은 의적과 마찬가지로

18) 광복 이후 나온 일지매 관련 서적 등의 전체 내용은 서신혜, 앞의 논문(2011. 6), 97-122쪽; 서신혜, 앞의 논문(2011. 12), 249-274쪽 참조. 필자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지매 관련 현대 서적은 약 25종, 영화는 11종, TV 프로그램은 10종이었다. 이들 대부분에서 일지매의 상대역은 악인이었고, 일지매는 그들에 대해서 선을 대변하여 악을 징벌하는 입장이었다.

19) 司馬遷, 『史記』, 「游俠列傳」. 今游俠, 其行雖不軌於正義, 然其言必信, 其行必果, 已諾必誠, 不愛其軀, 赴士之阨困, 既已存亡死生矣, 而不矜其能, 羞伐其德, 蓋亦有足多者焉.

20) 李鈺, 『鳳城文餘』, 「張福先傳」. 所貴乎俠者, 能輕財重施, 尚義氣周困急, 而不望報, 斯其爲俠人乎.

재물 앞에서 약해지거나,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선악의 문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요 신의 문제로 움직이며, 이 신의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의적’과는 조금 다른 종류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룻은 어느 인물이 약자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이라서 그 집을 털거나 그를 괴롭힌 경우가 별로 없다. 자신의 지인이 모욕을 당했거나 그 지인이 요청할 때 그를 위해 나선다. 나룻에게 술을 사겠다고 데리러온 도둑 떼가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여분의 양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호구의 쌀가게에 들렀으나 무뢰배라면서 쌀가게 주인이 그들을 백안시했다. 그래서 나룻은 그 밤에 쌀가게에서 쌀을 흔적도 없이 빼내어서 그 무리에게 주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다(7-1). 자신을 따돌리고 놀러간 백운방 도사들을 혼내달라는 지인 사왕삼의 부탁을 받아 도사들의 모자를 훔쳐서 그들이 놀러가지 못하도록 해주기도 했다(7-2). 어릴 적 친구였던 이가 나룻을 만나 너무나 가난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자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다 주어서 그가 평생 넉넉하게 살게 해준 적도 있다(3-2). 하지만 이것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옳거나 선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협객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신의를 중시한다. 그것이 선하거나 옳은 일이라서가 아니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에서는 시비(是非)나 선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의리(義理)가 훨씬 중시된다. 시비, 선악의 문제라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징벌이 필요하므로 비참함, 장렬함 등이 따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리나 약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난스런 요구와 약속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희작성이 작품에 드러난다.

무뢰배를 꺼리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의 인지상정이요, 다른 사람이 끼면 불편하니 자기 무리들끼리 놀러가고 싶은 것도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자기 친구가 가난하다고 하여 부자인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훔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룻이 지인을 위해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신의 때문이요, 그들이 모욕당한 것을 자기가 당한 것처럼 여겨서 움직여준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각 장면에서 재물을 훔쳤을 때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7-1)에서는 쌀을 한 톨도 챙기지 않았다고 했으며, (3-2)에서도 훔친 물건을 친구에게 모두 주었다고 했다. 이 둘을 합칠 때 나룻이야말로 ‘의적’이 아니라 ‘협객’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작품 곳곳에서 나룻을 ‘협객’이라고 직·간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는 “이런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는 소인이기는 해도 협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특징을 “그들은 표리부동하거나, 재물을 구차하게 얻으려 하거나, 재물을 보면 의를 잊어버리는 보통의 사대부들과는 같지 않았다”²¹⁾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일지매 관련 작품이 총 세 편²²⁾인데 이 세 편의 제목이 모두 ‘괴협’ 일지매이다. 한마디로 중국의 일지매는 ‘협객’인 것이다.

반면 한국의 일지매는 ‘의적’이다. 도적질하는 대상을 모두 악인으로 설정한 것에서 그 면모가 확연히 나타난다. 그런 악인들의 형상이 구체화 되면 될수록 그들의 재물을 훔치고, 아울러 때로는 글로, 혹은 직접 말로 그들의 악행을 꾸짖는 일지매의 형상이 더 뚜렷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돈을 다수의 빈민과 병자에게 나누어주니 그는 도둑이 아니라 ‘의적’이 된다. 한국에서 나온 일지매 관련 작품을 보면, 대부분 작품 자체에서 사람들이 그를 ‘의적 일지매’라고 불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책 제목이나 영화 제목에서 ‘의적’이라고 규정한 것도 전체 작품 중 반 정도나 된다.

한국의 일지매는 ‘개인적인 부탁’을 받거나 개인적인 ‘친분 인사가 모욕을 당했다’고 하여 ‘특별한 악행도 없는 보통 사람’에게 보복하는 경우가 없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일지매는 익명성을 생명으로 한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가 일지매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그에게 어떤 보복을 부탁할 수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일지매는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인물일 뿐이다.

한국 일지매가 익명성을 띠는 것은, 주로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징치를 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사기 때문이다. 힘과 재산이 있는 이들이라

21) 似這等人，也算做穿窬小人中大俠了。反比那面是背非臨財苟得·見利忘義一班峨冠博帶的不同。

22) 영화 <怪俠一枝梅> 유관위 감독(1994); TV 드라마 <괴협 일지매>(총 20회), 장건문 감독(2004); TV 드라마 <괴협 일지매>(총 30회), 이국립 감독(2010).

보복을 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일지매의 정체가 드러날 경우 보호될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일지매가 ‘악인’을 도둑질 대상으로 삼는 것을 고집하는 한, 그는 익명성을 띤 숨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가 그 악인을 징치하여 억압받는 사람을 돕는 ‘의적’이라 불리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한국 일지매의 익명성과는 달리, 중국의 일지매는 일지매라고 불리기 보다 대부분 ‘나룻’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모든 사람이 그의 정체를 알고 그의 숨씨를 알아서 한 번쯤 보여주기를 부탁할 정도이다. 7의 세 번째 삽화 같은 경우에는 관아의 창고가 털렸을 때 포졸들이 나룻이 한 것인 줄 한 번에 알아보고 실제 그를 만나 그 고을 지현이 붙잡아 오라고 했다고 전하기까지 한다. 중국의 일지매는 한국의 일지매와는 달리 완전히 드러난 인물인 것이다.

3. 행위와 매화의 의미 사이의 긴밀도 차이

중국의 일지매에서는 ‘매화’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나룻에 대해 처음 소개하는 부분에서 ‘도둑질을 하고는 매화 가지 하나를 그려놓아서 일지매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언급을 했을 뿐이다. 나룻이 매화의 출생이나 성장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가 매화와 관련된 무슨 경험을 했거나 하는 것도 없다. 일지매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첫 소개 외에 도둑질을 하고 나서 일지매를 그려놓고 갔다는 언급도 (7-3) 삽화에만 나올 뿐이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관아 안의 물건이니 내일 아침 어찌 함부로 추측하여 상관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랴 하고, 붓을 꺼내어 상자가 있던 시렁 옆 벽에 매화 한 가지를 그려놓았다. 그 후 가볍게 지붕 처마 있는 것을 따라 나왔다.’²³⁾

남들에게 혐의가 갈까 싶어 자기의 표시를 하는 것은 매화가 상징하는 깨끗함과 연결되지만 오직 그뿐 더 이상 나룻 자신도, 사람들도 그가 남긴 매화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다. 매화는 단지 그가 자신의 표적으로

23) 懶龍…… 心里想道。“官府衙中之物，省得明日胡猜亂猜，屈了無干的人。”摸出筆來，在他箱架邊牆上，畫著一枝梅花，然後輕輕的從屋檐下望衙后出去了。

남기는 어떤 것일 뿐이다. 매화가 아니라 다른 꽃이라도 상관없고, 다른 물건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마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니 그를 꼭 ‘일지매’라고 부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작가 역시 그를 시종일관 ‘나룡’이라 부를 뿐이다.

나룡의 행위를 매화의 ‘깨끗함’으로 연결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작품의 끝에 나룡이 도둑질을 그만둔 사연이 이렇게 나온다.

집에 도착하여 잣더미 속을 살펴보니, 금은 한 보따리와 번쩍번쩍 빛나는 칼 하나가 재 속에 묻혀 있었다. 장소사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저 교활한 도적놈! 내가 자기를 계속 괴롭힐까 봐 일부러 물건을 주어 내게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도리어 칼을 두어서 나를 위협하는구나. 어느 때 이것을 두었는지도 모르겠군. 참 신통한 솜씨로다! 이제 다시는 그를 건드리지 않아야겠다!”

나룡은 장소사를 두 번째 만남으로써 소주의 일이 명백해져서 자기가 꺼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는 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모함할까 두려워 이후로는 도둑질하는 솜씨를 다시는 쓰지 않았다. 잠잠히 짐을 치며 세월을 보내면서 몇 년간 장간사에 머물다가 결국 거기에서 죽었다.²⁴⁾

(8)의 삽화에 나오는 대목이다. 누명으로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 변장하고 숨어 지낼 때 자기를 알아보고 위협한 장소사에게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누명을 벗겨주면 사례하겠다’고 약속하여 결국 누명을 벗은 후의 일이다. 약속대로 사례를 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칼까지 두어서 위협하는 것은 ‘깨끗함’이나 ‘의로움’ 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이다. 또 모함 당할까 봐 두려워 도둑질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후일담 역시 매화 고유의 이미지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미 삼아 장난으로 솜씨를 자랑하던 사람이기에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국 일지매이다.

하지만 한국의 일지매는 ‘매화’ 자체가 그의 모든 존재와 행동 방식과 사람들의 기대까지 설명해줄 만큼 매화와 관련된성이 깊다.

조선시대에 나온 자료에는 매화의 의미가 그다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조수삼의 글에만 “매화 가지 하나를 그려놓으니, 다른 사람이

24) 到得家里, 便到灰中一尋. 果然一包金銀同著白晃晃一把快刀, 埋在灰里. 小舍伸舌道. “這個狠賊! 他怕我只管纏他, 故雖把東西謝我, 卻又把刀來嚇我. 不知幾時放下的, 真是神手段! 我而今也不敢再惹他了.” 懶龍自小舍第二番遇見回他蘇州事明, 曉得無礙了. 恐怕終久有人算他, 此后收拾起手, 再不試用. 實實賣卜度日, 栖遲長于寺中數年, 竟得善終.

의심 받을까 싶어서였다”²⁵⁾라는 언급이 있을 뿐 매화 자체의 의미나 그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로 짧은 기사만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나온 일지매 자료에 가서야 표면적으로 매화의 의미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일제시대 일지매 자료에서 힘없고 가난한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럴수록 일지매가 ‘의적’의 형상을 확실히 지니며, 그 형상이 구체화될수록 힘든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이미지와 매화의 이미지가 연결되어갔다.

일지매가 날마다 도적질을 해다가 무엇을 하는야 하면 다른 것이 아니다. 산뿔 궁벽한 곳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차저단이면서 뉘집에서는 밥을 몇 쟤나 못하엿스며 뉘집에서는 초상이 나서 장사를 못 지냈고 뉘집에서는 해산을 하고 찬방에 잇다는 것을 낫낫치 알아가지고 잇다가 밤에 뉘 집에든지 가서 도적질을 해 가지고 나와서는 자괴가 알아본 대로 등분을 해서 각 집 주인도 모르게 갖다두고 나올 적에 역시 매화 한 가지를 거리고 오는 것이 전례이다. 오늘날도 그리하고 내일도 그리해서 도적질 아니한 날이 업섯고 가난한 집 구제 아니한 쟤가 업기로 소문이 나기를 의적 일지매라고 하엿다.²⁶⁾

백성들이 마치 추위 속에 봄을 기다리듯이, 악인의 악행과 폭압이 심할 때에 이를 해결해줄 일지매를 ‘기다렸다’는 내용이 구체화된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있는 ‘매화와 그 ‘기다림’이라는 의미의 결합이 더 견고하게 된다.

화적 때에게 빼긴 물건을 관청에서 모른다 허는 반면에 괴도 일지매에게 물건을 잃고 아탄치는 것을 민간에선 고수허다고 춤을 추엿다. 이것이 일지매가 경상도에서 처음으로 발단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의게 첫 느낌을 준 호화관에 일막이엿다. 그런 뒤에 일지매는 경상도에선 영영 종적을 감추고 말엿다. “어디를 갖슬까 우리 일지매가” 허고 경상도 백성들이 일지매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²⁷⁾

광복 이후에 나온 자료에서는 일제시대 때에 나온 자료보다 더 정확하

25) 趙秀三, 『秋齋集』, 「紀異」, <一枝梅>. 刻一枝梅爲記, 盖不欲移怨於他也.

26) 『捕盜大將 張志恒과 義盜 一枝梅實記』 1929년(소화 4년) 大成書林 발행, 33쪽(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7) 全世源, 「怪盜 一枝梅」, 《월간 野談》 2·3월호(제11권 2호, 통권 110호)(野談社, 1945. 3), 24-25쪽.

게 ‘매화’와 ‘일지매’라는 인물의 상징성이 강하게 연결된다. 예컨대 최정주의 소설에서는 일지매인 현복이의 아버지가 “매화가 원래 여자들의 꽃이기는 해도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 깨끗한 절개는 남자들도 배워야 하느니라”²⁸⁾ 하고 자주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일지매가 매화를 그리는 것은 ‘추위 속에서도 깨끗한 절개’라는 이미지를 담은 것이라는 말이다. 홍기의 소설에서는 등장인물 미옥의 입을 통해 “매화조차 피지 않으면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²⁹⁾라고 했다. 일지매 활동의 의미를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이해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경우 일지매라는 도둑과 그가 그리는 ‘매화’라는 대상의 연관성이 처음에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매화’가 갖는 고유의 이미지와의 연결성이 더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사군자의 하나로서 매화가 지니는 ‘절개’나, 추위가 아직 매서울 때 꽃을 피워 다가올 봄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게 하는 ‘희망 혹은 기다림’의 이미지와 일지매라는 도둑이 행하는 행위의 의미가 점점 더 뚜렷이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이각박안경기』에 이어 『환희원가』에서도 첫 부분에 그 도둑이 일지매를 그리고 갔다는 언급 이외에 다시는 매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현대에 만들어진 영상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매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예컨대 1994년에 만들어진 유관위 감독의 영화 <괴협 일지매>에서는 군벌인 주인공이 밤에 변장을 하고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탁자 위의 꽃병에서 튀어 오른 매화 가지 하나를 입에 물고 나가게 된 것을 계기로 ‘괴협 일지매’라 불리게 되었다고 했을 뿐 매화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2010년 제작되어 중국 내에서 방영되다가 2011년 여름 방영된 이국립 감독의 중국 드라마 <괴협 일지매>에서는 여러 일지매 중 하나인 리가소(离歌笑)가 죽은 아내와의 추억의 장소로 매화가 만발한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것만 나올 뿐 매화의 다른 이미지와 그들의 활동을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일지매를 어떻게

28) 최정주, 『일지매』 1권(삼신각, 1993), 9-10쪽.

29) 홍기, 『일지매』 3권(대교출판, 1994), 53-54쪽.

형상화했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 이야기에서는 해당 인물의 도둑질 행위에 대해 그의 재주와 장난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 특별히 ‘절개’나 ‘희망’ 같은 매화의 이미지와 연결시킬 수 없다. 또 그 인물이 도둑질하는 대상이 악인이 아니요 보통 사람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그의 행동을 보며 ‘좀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을 수도 없다. 그러니 그 인물을 ‘나룻’이 아니라 특별히 ‘일지매’라고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그 인물을 ‘의적’으로 규정하고 의적으로서의 행위를 드러내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매화와 연결시킬수록 그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대상이 더 악독할수록 ‘아직 추울 때’에 피는 ‘꽃’으로서의 의미가 더 드러난다.

도둑이 도둑질을 한 후 자신의 짓임을 드러내놓고 가는 종류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여럿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일지매 이야기만의 특징은 당연히 자기를 드러내는 표징으로 ‘매화’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화의 이미지를 뚜렷이 살리면서 행위와 매화의 의미 차이를 더 긴밀히 하는 방향으로 일지매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는 한국판 일지매는 ‘일지매 이야기 고유의 의미’를 보다 잘 살리는 쪽으로 변화시켰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한중 일지매 이야기의 친연성과 변별성 문제에 대한 정리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일지매 이야기의 원류라고 알려진 『이각박안경기』 소재 일지매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논의를 넓혀 한중 일지매 형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간 소개 수준에 그쳤던 『이각박안경기』 소재 일지매 이야기 전체를 처음으로 깊이 살핌으로써 한중 일지매 형상을 보다 명확히 비교할 수 있었던 것이 이 글의 성과이다.

‘일지매’라는 인물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며, 이 이름이 조선에 전해져서 우리나라에 ‘일지매’라는 이야기가 전파된 것이다. 이름뿐만 아니라 일지매의 이야기에 나오는 삽화 중 일부가 우리나라 사람의 일지매 이야기에 나타난다. 필자는 이전 논의에서 오직 한 가지

삽화, 즉 일지매가 옥에 갇혀 있다가 밤에 잠시 빠져나가 다른 이들의 집에 일지매를 그려놓고 다시 돌아옴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옥에 갇힌 사람이 일지매가 아니라고 믿게 하여 석방되는 이야기만 중국 이야기에서 끌어온 것이라고 했었다.³⁰⁾ 하지만 『이각박안경기』를 번역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했다. (6-3)에서 나룻이 이불을 훔치는 과정 역시 우리나라 일지매 이야기에서 수용한 것이다. 나룻, 즉 일지매는 이불을 훔치라는 주문을 받아 그 이불을 ‘깔고 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이리저리 밀치락달치락 하여’ 그 이불을 빼내는데, 『포도대장 장지항과 의도 일지매』에서도 “일지매는 그 길노 곳 장대장집으로 가서 본즉 장대장은 첩과 가티 한자리에서 잔다. 일지매는 발가벗고 돌이 누어 자는 새이로 드러가서 이리 밀고 저리 밀어서 깔고 자든 요를 것어서”라고 되어 있다.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그대로 끌어온 것이다. 하지만 『이각박안경기』에서는 각각 다른 두 이야기였던 것을 우리나라 일지매 이야기에서는 ‘옥에 있던 일지매가 나와서 이불을 빼앗아 거기에 일지매를 그리고 오는’ 것으로 하여 하나로 묶었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이렇듯 중국과 우리나라의 일지매는 일단 이름이 같고, 똑같은 삽화가 있으며, 때로 표현이 같은 것까지 나오므로 중국으로부터 일지매 이야기를 유입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인물에 대한 형상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의 일지매는 신분이 드러난 험객이었던 것에 비해 한국의 일지매는 시종 일관 ‘의적’으로서 활동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몰래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대신 혼내주는 의적이었다. 그래서 그가 그리는 ‘매화로 드러나는 ‘희망, 기다림’의 상징성 역시 한국 일지매에서 두드러지게 창조한 형상이다. 문자향이 짙게 풍기는 우아한 우리나라의 의적 형상은 중국의 일지매와는 전혀 다르게 창조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일지매의 중국 원류만을 따지는 것도 바른 의견이라 보기는 어렵겠다. 일지매 이야기야말로 지역 간 이야기가 어떻게 전파되어 어떻게 그 지역에 맞게 변형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30) 서신혜, 앞의 논문(2011. 3), 102-103쪽.

참 고 문 헌

- 배선애, 「매체전환에 따른 TV 드라마의 대중성 확보 방식 연구-식객과 돌아온 일지매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41집,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342-377쪽.
- 서신혜, 「일지매 이야기의 연원과 전승 양상」. 『어문연구』 12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239-260쪽.
- _____, 「일제시대 일지매 관련 새 자료의 양상과 의미」. 『한국언어문학』 76집, 한국언어학회, 2011. 3, 85-107쪽.
- _____, 「일지매 콘텐츠 생산 傾向史와 그 방향성」. 『漢文學報』 24輯, 우리한문학회, 2011. 6, 97-122쪽.
- _____, 「일지매 관련 현대 출판물의 계통과 그 功過」. 『한국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12, 249-274쪽.
- 윤석진, 「HDTV 드라마 <돌아온 일지매>의 서사 기법 고찰-이야기 전달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547-578쪽.
- 최용철, 「의적 일지매 고사의 연원과 전파」. 『중국어문논총』 30집, 중국어문연구회, 2005, 279-308쪽.
- 한양민, 「책녀의 기능 분석을 통해 살펴본 돌아온 일지매의 영웅담론」. 『문예시학』 21집, 문예시학회(구 충남시문학회), 2009, 71-94쪽.

일지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능몽초의 『이각박안경기』에 서이다. 이후 일지매 이야기는 중국에서는 『환희원가』라는 책의 일부로 포함되기도 하였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크게 인기를 끌었다.

이 글에는 나룻, 즉 일지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뿐만 아니라, 나룻의 소지품,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남만을 온전히 돕는 훌륭한 점, 위기에서 벗어나는 임기응변 솜씨 등을 담았다. 또한 여러 도둑질 사례를 소개하되 장난으로서의 도둑질과 악인에 대한 징치로서의 도둑질을 그렸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는 이런 능력 있는 인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결국 도둑이 되게 만드는 사회와 위정자들을 비판했다. 하지만 작가의 그런 노력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여러 이야기에서는 나룻의 장난기 어린 행위와 그것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웃음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런 나룻, 즉 일지매의 모습은 한국의 일지매 이야기와는 매우 다르다. 중국 일지매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재주를 보여주며, 때로 지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지인을 서운하게 한 사람들을 혼내주는 정도의 사람이다. 하지만 한국의 일지매는 약자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반드시 나온다. 그 악인들을 일지매가 도둑질을 통해서 혼내주고, 거기서 얻은 것을 백성들에게 몰래 나누어준다. 그러므로 중국 일지매는 재주꾼이자 협객이었다면 한국의 일지매는 징벌자이자 의적이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중국 일지매는 매화의 의미를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었던 반면, 한국 일지매는 ‘어려움 속에 피는 희망’ 같은 일지매의 이미지와 굳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투고일 2011. 12. 20.

수정일 2012. 2. 10.

게재 확정일 2012. 2. 11.

주제어(keyword) 능몽초(Neungmongcho), 이각박안경기(Igakbagangyeonggi), 일지매(Iljima), 환희원가(Hwanhuiwonga), 의적(a legendary outlaw)

